



메가스터디 박기호 논술

---

# 시립대 파이널

---

2020 모의

## 1부. 문제

-시립대 2020 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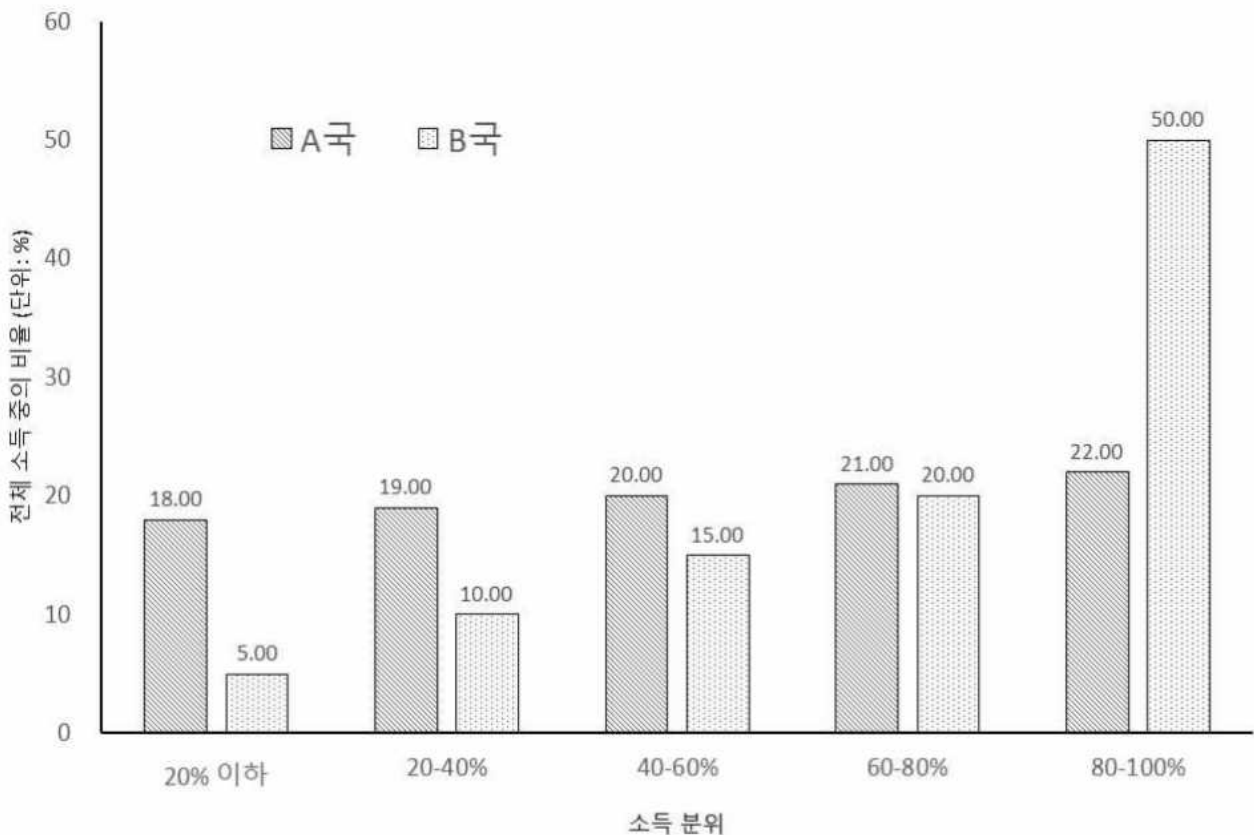
※시험시간: 120분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다음은 A국과 B국의 각 분위별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가로축은 각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인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배열한다고 할 때 각각 20% 이하, 20-40%, 40-60%, 60-80%, 80-100%의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별로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세로축은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18%를 벌어들인 반면 B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5%를 획득하였다.



한편 다음의 표는 A국과 B국의 성인 인구, 자본재의 규모 및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두 나라에서는 동일한 한 가지의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재가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자본재의 규모는 기계의 대수를 나타내고 국민소득은 생산물 시장가치의 합과 같다. 양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과 노동자의 숙련도 및 자본재의 품질, 그리고 물가 수준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20-65세 인구 (단위: 명)	1,000	200
자본재의 규모 (단위: 대)	2,000	400
국민소득 (단위: 억 원)	1,000	1,000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론하라.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보 기 >

사람들 누구나 무더위를 괴로워하지만 / 나는 긴 여름 해를 좋아하네.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 전각엔 시원한 기운 일어나네.  
 일단 이런 곳으로 거쳐 읊기면 / 괴로움과 즐거움 영영 잊고 마니,  
 원컨대 이런 베풀 고르게 하여 / 시원한 그늘 사방이 누렸으면.

[가] 인간의 본성적 능력과 주어진 조건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키가 큰 반면 어떤 이들은 작다. 또 어떤 이들은 현명한 반면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 출신 성분이나 교육을 통해 어떤 이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힘이나 지혜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속한 집단이 생각하는 방식만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곤 한다. 예컨대 어떤 집단은 동성애가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동성애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집단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와 활동의 권한을 주길 바라는 반면, 다른 집단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인간 본성을 분명하게 한정지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어떤 집단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할 수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은 정치 논의에서 인간 본성을 배제시키기도 했다.

다행히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적절한 수준에서 한정 지어 줄 만한 기준이 하나 있다. 모든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 인간의 본성을 사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본성의 문제가 아니다. 본성은 결코 자기 자신과 다투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문화가 자신의 문화보다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은 본성상 언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여 유지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정의를 추구한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 갖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공통의 가능성, 즉 태어난 문화권 안에서 번영하고 그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곧 인간의 본성이다. 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깨달을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도, 혹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건전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성적이다.

[나] 그러니 불평을 말아라. 바보들은 오로지  
위대한 별집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애를 쓴다만  
세상의 편리함을 누리며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면서도 넉넉하게 사는 것이  
커다란 악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머릿속에나 들어 있는 헛된 꿈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사기와 사치와 오만은  
그 이득을 우리가 누리는 한 남아 있을 것이다.  
배고픔은 끔찍한 재앙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없다면 누가 밥을 삭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포도주를 얻는 것은  
초라하게 말라 꼬부라진 포도 넝쿨 덕이 아니던가.  
덩굴은 새싹을 내버려 둔 채  
다른 나무를 목 조르며 숲으로 달려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고귀한 열매로 축복해 주는 것은  
바로 덩굴이 묶이고 잘리고 나서이다.  
(...)  
나라에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위대해지고자 해도  
사람이 배고파야 먹게 되듯이  
순진한 미덕만으로는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없다.  
황금시대를 되살리려면

사람은 자유로워야 하니  
도토리에 대해서나 정직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다.

[다] 함경남도에 있어서의 가장 긴급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일 것이니 특히 어느 한 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 문제라든가 연안축항 문제라든가 함중선 부설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얼마든지 지금 당면 문제로 걸려 있어 그 긴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시각을 좀 달리하여 교육 문제와 관련되는 일반 농촌 대중에 문자 보급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 번 역설하여 보다 완전한 시절이 급속히 실현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함경남도는 본래 문화가 떠러진 지방이었으나 시대가 밝아지면서부터 구시대의 반동으로 향학열이 어느 지방보다 치열하였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함남 각지 농촌에는 거진 빠짐이 없이 크나 적으나 촌촌 야학이 있었다. 그 자세한 수짜를 얻기는 어려우나 웬만한 촌에는 으레히 야학이 있어서 다소 식자나 잇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왔다. 수짜로 보아서 학교 교육에 비할 것은 아니겠으나 영원히 문자로부터 격리되어 잇는 그들에게 남과 같이 배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면 그 아무 데에다가도 비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탓인지 시대의 탓인지는 차치물론하고 그러한 문자 보급 기관의 대부분이 오늘날 자취를 감춘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다. 없어지게 된 데에는 물론 그만한 원인이 잇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어쨌던 이것은 꼭 잇어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바이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국은 속히 보편적 방침을 세워 가지고 문맹타파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함남도 통계를 보면 도내 서당 수가 오백육십 개소이며 강습소가 구십삼 개소이고 거기서 수강한 인원이 삼만 명이라 한다. 일견 그 수짜는 상당히 큰 것 같으나 함남도 백오십만 인구를 고려에 느을 것 같으면 아직도 그 수는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화를 동경하는 식자의 욕심으로 말하면 가정부인이고 늙은 농부고 머슴이고 비복이고를 막론하고 죄다 글자 배울 기회와 기관을 가지게 하고 싶다. 과거 도내에 야학이 성행하던 때에는 보통 학교로 갈 수 없는 남녀 아동이 혼연히 모다 책을 끼고 야학으로 모여 왔었다. 대부분의 야학, 서당, 강습소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므로 이제부터는 당국이 솔선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그 전보다 오히려 나은 기관을 만드려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서적이 나가는 수로 보아도 함남도가 특히 다른 지방보다 문자에 대한 열망이 왕성한 것을 알 수 잇는 것이니 여게 적당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급시킨다면 다른 곳보다도 효과가 클 것이다.

산업 문제 같은 것은 생활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중요시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어떠한지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사실이나 문자에 관한 문제는 당국이나 식자들이 적절한 방침을 세우지 안코는 그 자체로서 해결될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모든 기회에 있어서 거듭거듭 부르짖지 안호면 안될 긴급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잇는 것이다.

[라] 내 생각에 우리는 그간 너무도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난 문제가 있으니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돼’, ‘난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받아야만 해’, ‘난 집이 없으니 정부가 집을 제공해야 마땅해’.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회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개인으로서의 남성과 여성과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첫째로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돌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삶은 상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 사람들이 의무는 없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먼저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주는 수당은 그들이 아플 때 안전망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좋아, 우리는 힘을 모아서 보험을 갖춘 거야.' 이게 수당의 목적인데, 세상에는 이 시스템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과 수당이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이 일 자리가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 수단을 제공받게 될 거야'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는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그만큼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그건 실업수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이웃이 제공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스스로 별어서 먹고살 수 있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 2부. 해설

### [문제 1~3]

**■ 제시문 해설 [문제 1~3]**

<p>[가] ❶ <b>인간의 본성적 능력과 주어진 조건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b> 어떤 이들은 키가 큰 반면 어떤 이들은 작다. 또 어떤 이들은 현명한 반면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 출신 성분이나 교육을 통해 어떤 이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힘이나 지혜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p> <p>❷ <b>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속한 집단이 생각하는 방식만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곤 한다.</b> 예컨대 어떤 집단은 동성애가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동성애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집단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와 활동의 권한을 주길 바라는 반면, 다른 집단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❸ <b>인간 본성을 분명하게 한정지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❹ 어떤 집단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할 수 있다.</b>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은 정치 논의에서 인간 본성을 배제시키기도 했다.</p> <p>다행히 ❺ <b>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적절한 수준에서 한정 지어 줄 만한 기준이 하나 있다.</b> 모든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❻ <b>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 인간의 본성을 사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본성의 문제가 아니다.</b> 본성은 결코 자기 자신과 다투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문화가 자신의 문화보다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❼</p> <p>그렇다면 ❽ <b>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b> 인간은 본성상 언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여 유지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정의를 추구한다. ❾ <b>따라서 언어를 통해 갖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공통의 가능성, 즉 태어난 문화권 안에서 번영하고 그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곧 인간의 본성이다.</b> 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깨달을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도, 혹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❿ <b>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건전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성적이다.</b></p>	<p>전제: 인간의 자연적 조건은 상이함(인간 본성의 불평등)❶</p> <p>문제상황: 특정 집단의 편견에 따라(소속 집단에 유리한 방식으로) 인간 본성을 규정(❷, ❹)→갈등의 무기로 인간 본성을 이용(❸)</p> <p>문제원인: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이 부재(❸)</p> <p>대안: 인간 본성의 보편적 기준 설정→이때의 보편적 기준은 자연적 본성을 고려하되(❺)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등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❽)</p> <p>(❽) 평등한 조건: 모든 인간은 언어 능력을 통해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p> <p>❿ 공통적인 인간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p> <p>↳ 형평성, 분배, 평등주의 강조</p>
--	--

<p>[나] ❶그러니 불평을 말아라. ❷바보들은 오로지 위대한 별집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애를 쓴다만 ❸세상의 편리함을 누리며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면서도 넉넉하게 사는 것이 커다란 악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머릿속에나 들어 있는 헛된 꿈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❹사기와 사치와 오만은 그 이득을 우리가 누리는 한 남아 있을 것이다. ❺배고픔은 끔찍한 재앙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없다면 누가 밥을 삭이며 살아갈 것인가. ❻우리가 포도주를 얻는 것은 초라하게 말라 꼬부라진 포도 넝쿨 덕이 아니던가. ❼덩굴은 새싹을 내버려 둔 채 다른 나무를 목 조르며 숲으로 달려가는데 ❸그럼에도 우리를 고귀한 열매로 축복해 주는 것은 바로 덩굴이 묶이고 잘리고 나서이다. (...)</p> <p>❹나라에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위대해지고자 해도 사람이 배고파야 먹게 되듯이 순진한 미덕만으로는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없다. ❿황금시대를 되살리려면 사람은 자유로워야 하니 도토리에 대해서나 정직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p>	<p>-사기와 사치, 오만 등의 악덕은 사회의 풍요를 증대(❶~❸)</p> <p>-빈곤이나 결핍이 개인들의 성장 의욕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❹~❸)</p> <p>-따라서 사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❹, ❿)</p> <p>↳ 효율성, 성장, 능력주의 강조</p>
<p>[다] 함경남도에 있어서의 가장 긴급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일 것이니 특히 어느 한 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 문제라든가 연안축항 문제라든가 함중선 부설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얼마든지 지금 당면 문제로 걸려 있어 그 긴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❶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시각을 좀 달리하여 교육 문제와 관련되는 일반 농촌 대중에 문자 보급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 번 역설하여 보다 완전한 시절이 급속히 실현되기를 요망하고 있다.</p> <p>❷함경남도는 본래 문화가 떠러진 지방이었으나 시대가 밝어지면서부터 구시대의 반동으로 향학열이 어느 지방보다 치열하였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함남 각지 농촌에는 거진 빠짐이 없이 크나 적으나 촌촌 야학이 있었다. 그 자세한 수짜를 얻기는 어려우나 웬만한 촌에는 으레 야학이 있어서 다소 식자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왔다. 수짜로 보아서 학교 교육에 비할 것은 아니겠으나 영원히 문자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들에게 남과 같이 배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면 그 아무 데다가도 비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p> <p>❸그러나 사람의 탓인지 시대의 탓인지는 차치물론하고 그러한 문자 보급 기관의 대부분이 오늘날 자취를 감춘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다. 없어</p>	<p>❶주장: 문자 보급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p> <p>❷이유: 문자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는 시대적 요구</p> <p>❸문제 상황: 문자 교육 기관의 축소, 소멸</p>

<p>지게 된 데에는 물론 그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어쨌던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바이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국은 속히 보편적 방침을 세워 가지고 문맹타파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p> <p>④이제 함남도 통계를 보면 도내 서당 수가 오백육십 개소이며 강습소가 구십삼 개소이고 거기서 수강한 인원이 삼만 명이라 한다. 일견 그 수 째는 상당히 큰 것 같으나 함남도 백오십만 인구를 고려에 느을 것 같으면 아직도 그 수는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p> <p>⑤문화를 동경하는 식자의 욕심으로 말하면 가정부인이고 늙은 농부고 머슴이고 비복이고를 막론하고 죄다 글자 배울 기회와 기관을 가지게 하고 싶다. 과거 도내에 야학이 성행하던 때에는 보통 학교로 갈 수 없는 남녀 아동이 혼연히 모다 책을 끼고 야학으로 모여 왔었다. 대부분의 야학, 서당, 강습소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므로 이제부터는 당국이 출선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그 전보다 오히려 나은 기관을 만드려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서적이 나가는 수로 보아도 함남도가 특히 다른 지방보다 문자에 대한 열망이 왕성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여계 적당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급시킨다면 다른 곳보다도 효과가 클 것이다.</p> <p>⑥산업 문제 같은 것은 생활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중요시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어떠한지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사실이나 문자에 관한 문제는 당국이나 식자들이 적절한 방침을 세우지 안코는 그 자체로서 해결될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모든 기회에 있어서 거듭거듭 부르짖지 안흐면 안될 긴급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p>	<p>④기존 대안 비판: 비록 도내에 서당 기관이 분포하고 있지만 그 수적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p> <p>⑤계층, 나이 불문하고 문자 교육의 보급이 절실함</p> <p>⑥교육 문제는 상대적으로 생활의 긴급한 문제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탓에 그 중요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p> <p>↳ 형평성, 분배, 평등주의 강조</p>
<p>[라] 내 생각에 우리는 그간 너무도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①‘난 문제가 있으니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돼’, ‘난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받아야만 해’, ‘난 집이 없으니 정부가 집을 제공해야 마땅해’.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②사회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개인으로서의 남성과 여성과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③사람은 첫째로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돌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삶은 상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무는 없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먼저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④우리가 주는 수당은 그들이 아플 때 안전망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좋아, 우리는 힘을 모아서 보험을 갖춘 거야.’ 이게 수당의 목적인데, ⑤세상에는 이 시스템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과 수당이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이 일자리가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 수단을 제공받게 될 거야’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그만큼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합니다. ⑥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그건 실업수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p>	<p>①기존 통념: 개인의 문제를 사회가 해결(개인의 정부 지원 제도 의 존도 심화)</p> <p>②기존 통념 비판: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인뿐(사회명목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책임성 강조)</p> <p>③결론: 자립의 필요성 강조, 권리에 걸맞은 책임 의식 필요, 이웃에 대한 배려는 그 다음 문제</p> <p>④자립 의지, 의무감, 책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책은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순기능을 잃고 개인의 무임승차 수단으로 전락함</p> <p>⑤정부의 과도한 복지책→개인의 무임승차 경향 심화→선량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대→기존의 긍정적 취지 상실→복지 제도의 위기 초래</p>

<p>에요. 그건 당신의 이웃이 제공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살 수 있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p>	<p>⑥개인의 능력에 따른 노동 참여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해야 함 ↳ 효율성, 성장, 능력주의 강조</p>
<p>&lt;보기&gt;  <b>①</b>사람들 누구나 무더위를 괴로워하지만 / 나는 긴 여름 해를 좋아하네.  <b>②</b>훈풍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 전각엔 시원한 기운 일어나네.  <b>③</b>일단 이런 곳으로 거처 옮기면 / 괴로움과 즐거움 영영 잊고 마니,  <b>④</b>원컨대 이런 베풀 고르게 하여 / 시원한 그늘 사방이 누렸으면.</p>	<p>①화자는 긴 여름의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음          ②이유: 전각(殿閣, 크고 좋은 집)에서는 통풍이 잘되기 때문          ③문제의식: 전각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면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누릴 수 없게 됨          ④계달음: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게 되길 희망함          ↳ 형평성, 분배, 평등주의 강조</p>

■ 매트릭스 분석 및 예시답안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요구사항	①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 ②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③ 600자 내외
논제유형	비교, 설명(요약)

요약	[가]		
	- 인간의 자연적 조건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사람들은 특정 집단의 편견에 따라 인간 본성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갈등의 무기로 인간 본성을 악용하기도 한다. - 따라서 인간 본성의 동등한 조건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조건은 모든 인간이 언어 능력을 통해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처럼 공통적인 인간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비교기준	형평 - 효율 평등주의 - 능력주의		
비교대상	[나]	[다]	[라]
	- 사기와 사치, 오만 등의 악덕은 사회의 풍요를 증대 - 따라서 사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 빈곤이나 결핍이 개인들의 성장의욕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문자 보급 문제가 최우선 과제 - 계층,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보급하여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제도와 지원책이 필요함	- 정부의 복지 제도가 긍정적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회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음 - 과도한 복지 지원은 개인들의 무임승차 경향을 유발하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 - 이것은 결국 국가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복지 제도의 위기를 야기 - 따라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노동 참여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해야 함
비교지점	효율성, 성장, 능력주의 강조	형평성, 분배, 평등주의 강조	효율성, 성장, 능력주의 강조
구체적 차이	개인들이 능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인 조건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며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동등한 조건과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가]의 입장과 구별됨		형평성을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낮춘다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분배의 형평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가]의 입장과 대비됨

**[매트릭스 예시답안]**

[가]는 인간의 자연적 조건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집단의 편견에 따라 인간 본성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갈등의 무기로 인간 본성을 악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 본성의 동등한 조건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조건은 모든 인간이 언어 능력을 통해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공통적인 인간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가]와 주된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라]이다. [나]는 사기와 사치, 오만 등의 악덕은 사회의 풍요를 증대시키므로 사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는 빈곤이나 결핍이 개인들의 성장 의욕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개인들이 능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인 조건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며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동등한 조건과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가]의 입장과 구별된다.

[라]는 정부의 복지 제도가 긍정적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회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한다. 과도한 복지 지원은 개인들의 무임승차 경향을 유발하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복지 제도의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노동 참여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라]의 관점이다. 이것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낮춘다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분배의 형평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가]의 입장과 대비된다.

---

**[대학 측 예시답안]**

---

## 1. [가]의 내용 요약

인간의 자연적인 조건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한정 짓는 기준이 없으면, 특정 집단 내에서의 기준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다른 집단과의 갈등의 무기로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란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속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른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2.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라]이다. [가]는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본성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다른 집단에 대해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면서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본성이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언어 구사 능력은 자신이 속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제시문은 주장한다. 본성을 개별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사용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발전 능력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가] 제시문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본성을 보고 있다. 결국 이는 형평(또는 분배)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 주어진 제시문들 가운데 이와 반대되는 관점을 피력한 것은 [나]와 [라]이다.

##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나]는 사람들이 배고픔이 없다면 밥을 먹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정직이나 순진한 미덕으로 표현되는 윤리적인 가치나 자선적인 정책으로는 나라가 잘 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기, 사치, 오만 등 악덕으로 여겨지는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성과를 가져오는 덕목이며,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만 국가가 부강할 수 있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공유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 제시문 [가]와는 반대되는 견해이다.

## 2-2.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본 제시문은 관대한 복지 제도를 비판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 제도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다 보니 개인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핵심 사명으로 삼는 복지국가 체제에서 복지 지출의 재원이 국민의 경제활동 결과 발생하는 세금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대한 복지 제도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필요한 복지 지출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비대한 복지국가를 축소시키고 경쟁에 기초한 사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본 제시문은 형평성을 강조한 사회가 결국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지 비판함으로써 제시문 [가]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

**[대학 측 평가기준]****[ 유의할 사항]**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1]**

<유의 사항>

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1) 제시문 [가] 요약: 30점

- 30점 - 2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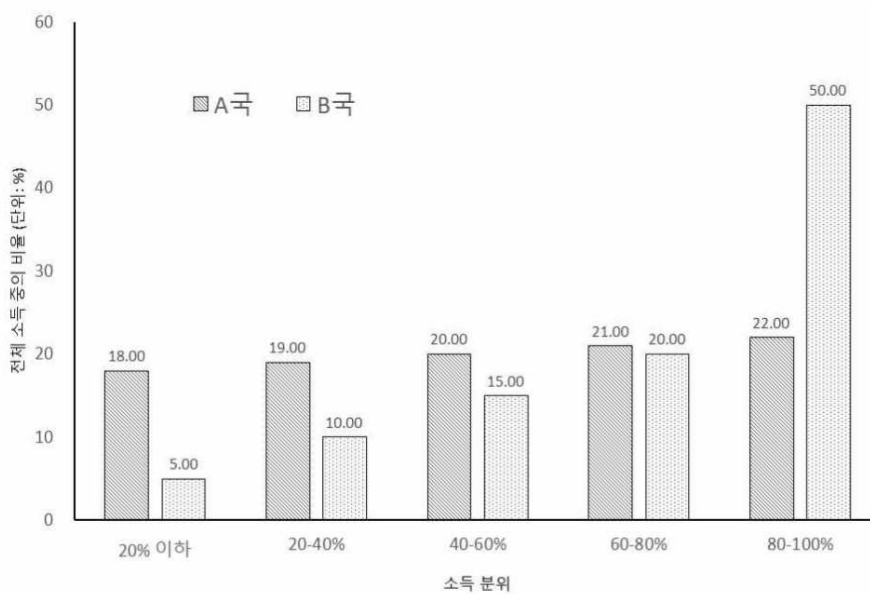
- 10점: [나]와 [라]를 모두 찾은 경우.
- 5점: 하나만 찾은 경우.
- 0점: 둘 다 못 찾은 경우.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60점

- 60점 - 51점: [나]와 [라]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 50점 - 41점: [나]와 [라]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 40점 - 31점: [나]와 [라]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나]와 [라]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점 - 21점: [나]와 [라]의 논거를 모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라]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나]와 [라]의 논거를 모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나]와 [라]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매트릭스 분석 및 예시답안 [문제 2]

다음은 A국과 B국의 각 분위별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가로축은 각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인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배열한다고 할 때 각각 20% 이하, 20-40%, 40-60%, 60-80%, 80-100%의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별로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세로축은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18%를 벌어들인 반면 B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5%를 획득하였다.



한편 다음의 표는 A국과 B국의 성인 인구, 자본재의 규모 및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두 나라에서는 동일한 한 가지의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재가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자본재의 규모는 기계의 대수를 나타내고 국민소득은 생산물 시장가치의 합과 같다. 양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과 노동자의 숙련도 및 자본재의 품질, 그리고 물가 수준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20-65세 인구 (단위: 명)	1,000	200
자본재의 규모 (단위: 대)	2,000	400
국민소득 (단위: 억 원)	1,000	1,000

쟁점: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에 따른 생산성 차이 비교

변수: 국가,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 생산성 지표(노동력, 자본재 규모, 국민소득)

상관관계:

1) 소득 분배의 균등도: A국은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이 20% 수준으로 균등한 반면, B국은 소득 1분위의 소득 비중이 5%에 불과하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분배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 분배가 불균등함(특이점: 특히 소득 5분위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함)

↳ 분배의 형평성 면에서는 A국이 유리함

2) 생산성: A국은 B국에 비해 노동력과 자본재가 5배 많지만, 국민소득은 동일함(즉 A국은 B국에 비해 5배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효과는 크지 않음, 생산성은 B국의 1/5에 불과)

↳ 생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B국이 유리함

[문제 2]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론하라. (400자 내외, 배점 20점)

요구사항	①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 ②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론 ③ 400자 내외
논제유형	설명, 자료해석(원인 추론)

	A	B
쟁점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에 따른 생산성	
변수	국가,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 생산성 지표(국민소득, 자본재 규모, 노동력)	
전체적 상관성	-A국은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이 20% 수준으로 균등함 -A국은 B국에 비해 노동력과 자본재가 5배 많지만, 국민소득은 동일함(즉 A국은 B국에 비해 5배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효과는 크지 않음, 생산성은 B국의 1/5에 불과)	-B국은 소득 1분위의 소득 비중이 5%에 불과하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분배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 분배가 불균등함(특이점: 특히 소득 5분위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함) -B국은 A국에 비해 노동과 자본의 양의 1/5에 불과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총생산량을 산출함
특이점	성인 1인당 국민소득: 1억 원 (=1,000억 원÷1,000명) 1분위 평균소득: 9천만 원 (=1,000억 원×0.18÷200)	성인 1인당 국민소득: 5억 원 (=1,000억 원÷200명) 1분위 평균소득: 1억 2,500만 원 (=1,000억 원×0.05÷40)
해석	분배의 형평성 면에서는 A국이 유리함	생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B국이 유리함
원인 추론	1) 계획경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와 무관하게 소득 분위별 소득 분포가 균등하다는 것은 A국이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임을 암시	시장경제 소득 분위별 소득 편차가 심한 B국은 자유 경쟁 원리에 따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추구하는 자유시장체제임을 암시
	2) 재분배국가 A국은 자유시장체제 내에서 큰 정부에 의해 재분배가 강조되는 재분배국가일 가능성	최소국가 상대적으로 B국은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재분배를 지양하는 최소 국가일 가능성

[매트릭스 예시답안]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을 살펴보면, A국은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이 20% 수준으로 균등한 반면, B국은 소득 1분위의 소득 비중이 5%에 불과하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분배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다. 분배의 형평성 면에 있어서는 A국이 유리한 것이다. 한편 생산성 지표를 비교해보면, A국은 B국에 비해 노동력과 자본재가 5배 많지만, 국민소득은 동일하다. 즉 A국은 B국에 비해 5배의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A국이 1억 원, 5억 원인 B국의 1/5 수준이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B국이 유리하다.

양국 경제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첫째, 국가 경제체제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A국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와 무관하게 소득 분포가 균등하다는 것은 A국이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임을 암시한다. 반면 소득 분위별 소득 편차가 심한 B국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강조하는 자유시장체제임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국가 개입 정도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A국은 자유시장체제를 택하더라도 큰 정부에 의해 재분배가 강조되는 재분배 국가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B국은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재분배를 지양하는 최소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대학측 예시답안]**

---

그림은 양국의 소득분배 상황이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 A국과는 달리 B국의 소득 분배는 매우 불균등하다. 표는 양국의 생산 효율이 다름을 시사한다. A국은 B국에 비해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5배나 많지만 양국의 생산량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A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B국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는 국가일 수 있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균등한 소득분배는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 자원이 과다 배분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이 배분되어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A국은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생산 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B국은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부과하지 않으므로써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어진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 [ 유의할 사항]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 [ 2]

<유의 사항>

100점 중 그림과 표가 의미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에 50점을, 그 원인을 효과적으로 추론하는 것에 50점을 배정한다.

## 1) 그림과 표의 의미 기술: 50점

- 50점 - 31점: 그림을 통해 양국의 소득 분배가 다름을, 표를 통해 양국의 생산 효율이 다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한 경우.
- 30점 - 11점: 그림과 표의 시사점 중 한 가지만 정확히 기술한 경우.
- 10점 - 0점: 두 시사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 2) 양국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추론: 50점

- 50점 - 36점: 모범 답안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설명 중 하나가 논리적으로 제시된 경우.
- 35점 - 21점: 추론을 함에 있어 일부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 20점 - 10점: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고, 도입된 가정과 배치되는 가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11점 - 0점: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을 제시한 경우.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사람들 누구나 무더위를 괴로워하지만 / 나는 긴 여름 해를 좋아하네.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 전각엔 시원한 기운 일어나네.  
 일단 이런 곳으로 거쳐 읊기면 / 괴로움과 즐거움 영영 잊고 마니,  
 원컨대 이런 벼룩 고르게 하여 / 시원한 그늘 사방이 누렸으면.

요구사항	①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② 조건: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 ③ 1,000자 내외
논제유형	주장

	<보기>의 시
쟁점	화자는 긴 여름의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음 이유: 전각(殿閣, 크고 좋은 집)에서는 통풍이 잘되기 때문 문제의식: 전각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면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을 누릴 수 없게 됨 깨달음: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게 되길 희망함 ↳ 형평성, 분배, 평등주의 강조

주장	찬성
	형평성, 분배, 평등주의 강조
근거 1	세부 쟁점 1) 인간 본성의 자연적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이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가] 활용: 인간 본성의 자연적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자연적 조건의 불평등함은 개인의 공로 외에도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라는 우연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연적인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 조건이 어떨든 간에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개인이 공유하는 보편적 본성을 기준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2	세부 쟁점 2) 균등한 분배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 [다] 활용: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문자 체계를 보급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문자를 통한 배움의 기회는 계급, 성별, 나이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에서 말한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조건, 즉 모든 인간이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건과도 연관된다.
반론 1	세부 쟁점 1)에 대해 [나]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정당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성장의 동력을 낮추는 것이다. [나]를 활용하면 빈곤과 결핍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해주며,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풍요를 증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재반박 1	[나] 반박: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결정되는 현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능력에 따른 배분은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공로 이외의 요인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빈곤과 결핍이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양산할 뿐이다. 젊은 세대가 고위층 자녀의 입시 비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에 따른 차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론 2	세부 쟁점 2)에 대해 [라] 활용: 모두에게 동등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 즉 정부의 복지 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근로 의욕을 낮추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반박 2	[라] 반박: 사회의 복지 제도는 예상치 못한 불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회 복지 제도가 개인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무임승차의 의도를 지닌 소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적 하위 계층의 다수는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참여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재주장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조건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분배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	반대
	효율성, 성장, 능력주의 강조
근거 1	<p>세부 쟁점 1) 인간 본성의 자연적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이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나] 활용: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는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유능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낮추고 무능한 사람들의 무임승차 경향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은 문명과 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분배 정책 등으로 개인의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
근거 2	<p>세부 쟁점 2) 균등한 분배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          [라] 활용: 모두에게 동등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 즉 정부의 복지 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근로 의욕을 낮추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영국의 과도한 복지 정책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분위기를 조장하여 이른바 ‘복지병’으로 불리기도 했다.</p>
반론 1	<p>세부 쟁점 1)에 대해          [가] 활용: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 조건이 어떨든 간에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개인이 공유하는 보편적 본성을 기준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재반박 1	<p>[가] 반박: 모든 사람이 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여의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나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국가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은 소수의 탁월한 개인이다.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며, 소수의 탁월한 개인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바람직하다.</p>
반론 2	<p>세부 쟁점 2)에 대해          [다] 활용: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문자 체계를 보급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문자를 통한 배움의 기회는 계급, 성별, 나이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p>
재반박 2	<p>[다] 반박: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언어 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단일한 언어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것이다.</p>
재주장	따라서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통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매트릭스 예시답안]****(1) 찬성**

소수가 누리는 차등적 혜택을 부정하며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보기>의 시에 찬성한다.

첫째, [가]를 고려하면 인간 본성의 자연적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자연적 조건의 불평등함은 개인의 공로 외에도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라는 우연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연적인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 조건이 어떻든 간에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개인이 공유하는 보편적 본성을 기준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문자 체계를 보급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문자를 통한 배움의 기회는 계급, 성별, 나이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에서 말한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조건, 즉 모든 인간이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건과도 연관된다.

물론 [나]의 관점에서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정당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나]를 활용하면 빈곤과 결핍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해주며,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풍요를 증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결정되는 현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능력에 따른 배분은 공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공로 이외의 요인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빈곤과 결핍이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양산할 뿐이다. 젊은 세대가 고위층 자녀의 입시 비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에 따른 차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라]의 관점에 따라 모두에게 동등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 즉 정부의 복지 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근로 의욕을 낮추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의 복지 제도는 예상치 못한 불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망을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회 복지 제도가 개인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무임승차의 의도를 지닌 소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적 하위계층의 다수는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참여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조건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분배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2) 반대**

소수가 누리는 차등적 혜택을 부정하며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보기>의 시에 반대한다.

[나] 활용하면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는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유능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낮추고 무능한 사람들의 무임승차 경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은 문명과 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분배 정책 등으로 개인의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모두에게 동등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 즉 정부의 복지 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근로 의욕을 낮추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영국의 과도한 복지 정책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분위기를 조장하여 이른바 '복지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가]에서 지적하듯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 조건이 어떻든 간에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개인이 공유하는 보편적 본성을 기준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여의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나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국가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은 소수의 탁월한 개인이다.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며, 소수의 탁월한 개인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바람직하다.

한편 [라]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문자 체계를 보급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며 평등을 강조한다. 문자를 통한 배움의 기회는 계급, 성별, 나이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언어 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단일한 언어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통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 [대학 측 예시답안]

### (1) 찬성

[가]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등하지 않게 여기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각의 사회나 민족, 국가 등은 자신들의 편견에 따른 기준을 자연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이를 다른 집단과의 갈등에서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성에 대한 고려는 개인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종으로서의 인간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본성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성적인(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정의되었다. 언어 사용 능력으로서의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갖추게 한다. 이렇게 개인의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로서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 종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본성을 고려하면, 모든 사람이 각 집단의 문화적 번영에 똑같이 기여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형평을 추구하는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나] 사람들이 배가 고파야 일을 하게 되며, 부와 사치를 추구하는 욕망과 이기심,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경쟁 사회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제시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는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로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기도 했고 중국에는 대공황 등의 과국을 맞이하기도 했다. 개인의 탐욕 추구를 통제하지 않았기에 투기와 불법, 편법이 가득한 불공정한 사회가 형성되었고 그러한 불평등 사회는 도리어 사람들을 체념시켜 근로 의욕을 꺾기도 했다. 그렇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일정하게 공공성을 회복해야만 보다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제시문은 <보기> 시의 주제를 찬성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문자 체계를 보급하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 체계의 보급 없이 대중적인 정보의 전달은 불가능하며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거나 발전시킬 수도 없다. 또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정부인이나 늙은 농부나 머슴이나 비복을 막론하고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언어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복지국가는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제시문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제도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

작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모두 일하기 싫어하고 정부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IMF 경제 위기와 같이 외부 충격에 의해 실직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회가 어려움에 빠진 개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복지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한다면 복지 제도의 형평성 추구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 (2) 반대

[가] 언어 사용 능력으로서의 본성과 이를 통한 문화 발전의 가능성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제시문은 주장하지만, 이는 가능성의 차원일 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본성을 모두 평등한 정도로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언어 사용 능력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격차가 있기에,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능력 차이는 크다. 더 나아가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인간 공동체에는 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같은 수준에서 하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집단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하도록 기여하는 것은 뛰어난 언어 사용 능력이나 학문, 예술, 기예 등 다양한 면에서 뛰어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개인의 현실적인 능력이다, 그런 재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가능성은 사실 한 집단의 문화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가능성에 기대하면서 형평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실적인 능력 차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집단이 문화 발전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나아지기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역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부에 대한 탐욕은 윤리적으로 옳바르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잘 다스려서 도덕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옳바른 사회적 정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부를 추구하려는 욕망과 이기심이야말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쟁기려는 생각 덕분이라고 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악덕으로 여겨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가로막는다면 도리어 사회 전체의 발전은 저해될 것이다.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여 기계적으로 형평을 추구하다가 경제의 동력을 잃고 자본주의 사회와의 경쟁에서 몰락한 것은 바로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이다.

[다] <보기> 시의 주지에 반대하여 효율(또는 성장)의 우선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두루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이 당시의 문자 보급은 단순한 문맹 퇴치 운동이 아닌 통일된 문자 체계의 보급 즉 어문 규정에 맞는 표기 및 표준어의 보급을 통한 근대 국민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된 문자 체계가 없었던 시기에 문자의 보급이 언어공동체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문자 보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표준어의 보급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차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 구소련 지역의 고려말,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말 등이 한국어 의사소통의 한 변이형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쓰지 말아야 할 말, 쓰면 부끄러운 말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일된 문자 체계의 보급이 오히려 차별의 출발점이 되어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문자 체계의 보급이 언어공동체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며 늘 형평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라] 복지 제도의 취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복지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복지 정책을 생각해 보자.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때 정부의 도움으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의도도 있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판 삼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취지가 더욱 강하다. 정부가 무한히 도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 복지 수혜에 익숙해지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다. 당장은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보다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평성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측 평가기준]

[ 유의할 사항]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3]

< 사항 >

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1)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30점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2)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50점

- 50점 - 4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40점 - 3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3)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20점

- 20점 - 11점: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 10점 - 0점: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